

가인률편우종二韓國中華
횡발日九月十日年二廿國民

호일九月十日年二廿國民
일九月十日年二廿國民

報週洋平太

KOREAN PACIFIC WEEKLY

SERIES 27 VOL. 11 NO. 408 OCT. 19 1940

931 N. King St., Honolulu, T. H.

Published and Owned by Dongji Hoi

Subscription Rates: \$4.00 Per Year; 10 Cents Per Copy

공선령수를 디방별로

광전령수를 광포하는데 무손싸움으로 디방을 써라
광포하는가? 첫재는 동성동명호이가 잇어서 디방을
써라 저정보단에 반포하면 분간호기가 쉬운싸움이오
풀지는 그디방 사람으로 그동네아모아무는 광전을 너
엿고 누구누구는 아죽못되거니호야 그디방에서 광전
수봉에 통한히 하지 안키를 바라는 것이다
금년에 동지년례금과 기타 광전은 전혀 항너에서 만
히너있고 호항다음갈만치 살고잇는와히아와며 그의
힐로향에서는 광전수봉이 령성호엇스니 그무손연유
일까 그외에 다른디방사람들도 이에티호야 주의호야
년례금·주보덕금을 좀보너주시오
의지호는 동지회를 도아쥬시오

동지회중앙부 저무부 근고

Entered as second-class mail matter, April 29, 1930

at the post office in Honolulu, Hawaii, under
the Act of March 3rd, 1879

Center for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Hawai'i at Mānoa

百만한인이 다 배일파가 안이다

그려면 누가 친일파 한인인가? 우리가 동양사상에 국정신을 존숭하고 빙이 숙제의 와신상담을 가르치고 네이며 지금도 애국호라면 빙이 숙제를 모범함이 올흔 줄알지 만은 지금 세상은 그제와 달나서 백이 숙제 갖치 히 가지고는 국권을 만회할 도리가 업도다 와신상담시 대에는 나라가 끗님군이오 빙성은 님군의 부속품으로 너여서 님군을 나락로 송승호며 님군에게 충성해야 왔다 우리 한인형편으로 룬지호면 님군도 업서 젓고 나라 도망호었지 만은 오죽 남은 것은 조선민족이다 그림으로 조선민족이 나라와 국가는 즉 조선민족일다

일본통치에 살면서라도 민족을 위호야 일호는 사탐 이조선의 애국사요 일본과 친근히서라도 조선민족의 권리·성존을 위호야 일호는 자가 참조선을 사랑호는 자 이오희너희의 물물호하고 조선민족을 희롭제호며 일

인의 세력을 늘여 주는 일을 하는 한인은 민족의 원수일

다 그림으로 본국으로 오는 사람은 일본통치하에서 성장했으니 천일파로 지목할 배아니다 갑자 폭력에 사는

법·별지엄·노의이·덴막·할린민족이 다 친덕파 민족일

싸 일본통치하시는 중국 사람을 다 친일파로 지목함이

한번부당호도다

아모리나라일도 중호저만은 내단래사업 닉주의 주장에 반대호다고 차호성연호야 천일파라 지목함이을 쌔 홀에 숫률이면 반대당사람을 억적도 모죄로 얼거셔 치안토다 이것은 님무도 용열호다 우리나라에서 당파 싸움에 끓호야 찰화을 당제호 일도잇셨고 대원군시 대에 수만현주교인이 학살을 닥히슬때 역시현주교및 저안는자는 모호에 걸여 죽은자 부지기수일다

우리가 친일파라는 말을 흥기전에 스사로 선각호야

볼것이다 조선사람들이 서로서로 천일파지목함을 미

국인이 불색에는 우리가 얼마나 유치하고 어리석은 것

을 비웃슬지도 다미·일판계가 침악호이째에 우리들이

말조심안코 성각나는 데로 수풀이 면호부로 아모아모

가친일파라호야 피차간 정리를 손상호진된 그뉘가이

것을 찬성호고 깃비호리오 일인방계는 업을 것이다 그

팀으로 우리는 누가 친일이니 대일이니 그만두고 싸

홈파리들도 다 그만두고 일만가지고 친한덕사업호기

를 바라노라

히든러 통치 하에 범국

쉬리·안간·

(三)

팔리 8월 8일··· 덕인들이 저히들이 법국에 손님이

라임세하고 법인들은 덕인을 물체개이라 훔디

포루캐르·크임부라 8월 18일··· 개전이후로 나는

대덕사상을 가정자만은 군사소식은 통히 빨 송치안엇

슴으로 파리주저의 국 총선원 중후대를 밟어서 덕국군

사정함국은 나의 승립태도를 오히려 친양호였다 그리

서파리에 주재호씨에는 파리합락을 보도호리에 총살

을 당호줄었지 만은 덕국선집부의 총알은 면호였다

그러나 덕인은 우리에게 공손이 줄며 여러 방면으로

파리합락복도에 누가 흥악히 밀보 후 면호하고 덕경에

서는 그 탐보원을 차지하고 애를 썼다

8월 8일 아침에 나유숙호는 애팟드 맨 문을 몹시

두들기기에 일어나문을 업니 쟁시 총감이 와서 정치상

진급하져호것이 엇손주 경무청으로 가자호기에 가서 본족덕인 경무총감이 말호기를 덕경에서 상부명령이 나려서 쉬일·안간이란 미국통신원은 덕국 점령대방 에 더 용납할수 업손즉 8월 12일너로 출국호라호었다 나는 출국령을 당호고 이를너에 가산집률을 운반호 기불등호야 잊을통안쓰고 개슬린을 허락호면 자종차 를 쓰겠노라호오도 종서거절호으로 부득이 수레에다 짐을언저서 정거장에 갖다노았다

잇른날아참에 덕국참령이 절인호야 말호기를 그날 하오 3시에 려힐권을 발급호리이니 당일로 국경에서

출국호라호였다 파리시람은 비자정부가 덕국제조정 부인술모르고 비자정부와 덕국을 그저 대항호야 법국

상공업은 전파갓처소상처못호고 만사네상맥이 입식 오늘오늘사라가는데 영국정복 결파예하가 결정되기

전에는 숨을 못 쉬나 덕국녀자들이 파리에 악서 범국
녀자에게 동정호는 터도를 뵈이며 범국녀인의 적개심
을 일으킨다.

교통이 문예이니 절에 자동차를 라고 단니던 사람들은
온다 자팅거를 라고 통령호다 시민의 위상은 저락되자
안었지만은 자살인수호는 그 할이나 증가되었다 덕국
선전영향은 업스니 범인들은 으려노·라발·디컬을 히
들러 처럼 미워하나 그들의 분노는 의연으로 발표치안
었다.

종

신사崇拜

파토파 언데 칠 탕씨의 글

서지문

신사참배를 강제로 하는 세습에 조선교회는 참혹호
암박하에 있다. 제음에는 교육법에 응호여서 교회학교
로도 신사참배기를 요구하는데 지금은 교회를 암박호
는 목표로 삼는다. 순사의 총찰파 충동을 엿볼 수 없지 밋
는 장로회집회석에서는 신사참배가 교인 탐심의 위반
이 아니라 문예를 두 말업시 통파식하고 그문예개론

을 엄금호였다.

개인상으로 당호는 현실암박은 장로회나 교회보당
우심호다 그 안에는 순사 청구류나 위협이나 심활권식
할이나 악형통속이 경성드못하게 감축어 있다 이 모든
경제적 요구를 업데 케 헤션호 라
첫저로는 일인들이 열광적 종교신자들이 아니나 일
인은 종교가 국가를 밟드려가는 몸종으로 성각호느니
안콤 세속주권자들 데 노습하고 하누님은 를 저지위
로 밀운다 그런 힘동에 주지가 열광역 종교신앙은 아니
라고 홀지언정 일인승배호는 잡신이나 허양신이 황족
의 거룩된 신화적 조상이라는 것을 무손모양으로 던지
인증식히기 위호아 무리호재 암박호를 당장 우리는 목
전호다

이런 오구에 중심지는 신사이다 조선안에서 써세
로 신사참배를 강제로 인증 식힐뿐만 아니라 심호정우
면 악형을 예사로 훈다 선교사 모씨가 신사참배에 참아
머리를 숙일 수 없어서 불복호였든니 그허물로 그선교
사회정권리를 거절식하고 쏘세계교육대회가 일본에

서 소집되었던 당시에 신사참배를 제일순서로 정호였
다 만 한신시참배에 주지가 종교가 아니라면 그무엇지
되라 력사를 전감호야서 그를 대당호다 상고에 애급국
바로 왕족이라던가 중고에 날미주 폐루국인가 왕실에
서는 그제통이 일본처럼 뒤양선에서 밀워 되었다는 것
을 주장호였고 로이에 세도 형실신성론을 직혔다 이런
힘동이 국가정치나 왕실권리옹호호에 서불과 훈일이다
여기에 대호야 종교관념이 업는 것처럼 번번히 평계
호야 온일인당국에 소위를 반대치안을 수업다 일인주
장대로 흐면 종교관념이 업는 사들에게 거독교를 법에 위
반아니라는 편으로 추론을 헤게된다 거독교가 수입
됨으로 부터 일본력사세업든 신도의 국가구별론이 가
식으로 통경제국대학교강사부를 것쳐서 밟기 되었다
언제먼지 신사를 밟들고 추사를 드리는 그대로 계속됨
에서는 거독교진리와 상대됨을 면호기 불능호다

신도가 더 만애국을 충심으로 절한 과판이 된다는 선
언은 신도 존승론과 반대된다 신도 존승자들은 신도를
완전종교로 인증호다 그들은 불도나 거독교를 불완

현호사정에서 성활함으로 원리역, 텅통을 쳐한다. 선사참배 분대질통에 걸어들지 안는데는 두 가지리 유가잇스니 하나는 선사참배가 종교식이 안인즉 거독교인에게 박히될것이 업을뿐만 아니라 레의상으로 보와서라도 실힐흐여도 무관홀법호다는것이오 또하나는 교회학와 장로교회가 국가복무에 필요한 가치를 가지고잇순즉 그 가치를 그대로 보전식한다는것이다. 이현라협상터에 주장론은 랙이러호다 만 선사참배를 불복하면 교회교가 평폐되어 학성들이 오도가도 못흘려인즉 부득이 현실에 타협을 드려나게 암박호는우상선자교육제도 풍파속으로 학생을 모라님보담 차라리 날성부르디호다 아모린교육제도를 물론호고 진리를셔나서 타협하면 참된교육이 아니라는 사정파비평도 뜨거워싸라서 이래난다.

여기 대훈다른변명은 이러호다. 개독교인으로서 극우상이아모것도 안임을 잘아는바인즉 형식상례절노세속주권을 높히는선사참배가 그다지 손히를세치지

신시대 일본국가나 신도는 천연적으로 하느님을 섬기려는 인성이 아던가 주권자나 영웅애배심이라던가 애국성이 아던가 조상을 공경호는 등 습관이 혼합호야서 세워졌다 그중에 소수가 이모든 가치잇는것을 장악하고 그편협호 육망을 채우려는 편으로 리유를 삼는다 일본서 존중호는 신화나 태양신경배호는 창세자인 중이감추어잇마 근본을 말호는 일본신도가 엊지티양신에잇쳐서 긋치고마는리유가 그무엇이라 일본천구 중후자는 서양교으로도 그조상을 공경호리친호다. 개독교인에게는 이런명령이 필요치안라고호려니와 태양신승배를 거절라가 암박당호 개독교인들의 힘장을 아모리호여도 이줄수업다. 참된교인에게는 선사참배에 최후대당이잇다. 선부모찌는 이러케 말호일이잇셨다. 나는 선사참배와 아모런판계가 절연이었다.

일인당국에서는 선사문례를 로끌역으로 토의호기 를얼금호다. 아직은 선교회에서 선사문제를 거론치안 려니와 태양신승배를 거절라가 암박당호 개독교인들의 힘장을 아모리호여도 이줄수업다. 오리라는것을 허락호기때문에 국심호 충돌이이려나 대립호이라호였다.

던보

봉선

버마로 개통

지안는다만 선교회에서 이런허탁을 아니호엇든들 개회가 불능호 엇술것이다. 그러나 선교회 샤부처리가 하누님의 뜻을 말 전호려는 목적보당 더좋고요다호라 (래호에계속)

미국인들은 철뢰 준비
봉선
버마로 개통
론돈던: 처취할수상은 하의원에서 버마군봉드개 통을성명호고 말호기를영 미합대가 잇슬동안에는일 본이동맹국후원을 못벗으리라호였다.
버마군봉료를 3개월간정지호온 일본으로 중국사 벤을조절호까호야 하엿든바인데 일본은 그시에역 이와동맹을제걸호였다.
영수상은도 성명호되 그동맹은 반공정책 부활이오 미국이구전에 참가호면 일본으로 미국을 공격케함이 라호였다.

상희던: 미국국무성은 미국인에게 경고호야 동양 위경에서 철뢰호라호였다. 미국거선회사에는 선객의 선실주문이 담지호엇스며 미국판리는 환국호는 미국인에게 일본거선은 라지말나호 엇다호며 미국인철뢰 소문이 일본 사회에는 의외변사로 되었다. 미국영사는 미국시민에게 시급호위경이 안인즉 순서적으로 시일을정호야 환국호라호였스며

상희, 북경, 현진에주둔호 미국해군륙전대三千명을 인양겠다는 보도는 확실치안으나 시기가 위급호면륙 전대를 중국서 철뢰호리라호다.

일인판번은 미국인철뢰에대호야 와성돈이 일본의 반동예호를 동찰호이라호였다.

미국조개를 강탈

장개서장군이 영국에 10년 조차한 산동연안루강성
에 일회군이 상륙하였다

설라국에 경고

와성훈던... 헬구부경을 설라국에 다시 경고해바 미국온리평양 현상유지를 계속 찬성했다 하며 설라국과 안남국간의 령로충돌이 업기를 다시 력설해였다.
설라국에서 주문호 구축비거 10척를 미국서 수출함을 아주 정지해였다. 설라국에 비행과 총수는 100대며 망국간국경에 군사가 집중되었다.

설라국 경연 언론계는 설라국의 령로 할양에 대호야 법국이 정식으로 거절해으로 성명해였다. 설라국 대 학생들은 안남에 대호야 선전해하고 시위운동을 거친다.

기자... 가신처보도에 일본이 버마로 개통을 반대 했다.

기로 설라국을 점령해야 가지고 그곳서 중경에 가는 각

일본은 전장을 흥기로

종군수품운송을 저희해라

뉴욕자유주보 기자 윌리스씨는 거 9월 13일에 호 항을들니 미주로 가는 중로 배에 일만개에 대호거사를 반포해였다. 씨는 마스옥가 의상을 면회해바 마스옥가는 그에게 말호기를 미국이 터 평양현상유지를 고집하는 그에게 말호기를 미국이 터 평양현상유지를 고집하는 면일본은 미국과 전쟁해다 해였습니다. 월리스씨는 마스옥가와 면회해 것을 미국언론계에 보도해였다. 월리스씨가 호항에도 착할시에 일본령 샤판 대표를 이 자유보좌자를 만나보고 마수우기 성명에 대호야 오히려 온화해 대 일본의 무성은 미·일 관계에 대호야 오히려 온화해합니다에게 말호제을 들어볼것이라 해였다. 그는 무강경해어 조를 말호제안기를 바마노라 해였다. 그는 월리스는 써말호기를 일본문판의 언약은 아모소용 이 업다 군벌파가 일본을 통어하는데 안남서 험호듯 통인도와 매근래를一삭너로 점령해듯해다 해더라.

루동령은 서반구

방비를 력설

데이تون... 루스벨트 대통령은 오하요주 국방시설을 시찰할시에 남북미주에게 연설해바 구타파와 아시아의 독자단결이 서반구 인주국의 현합병비를 못막아 낸다 해였다.

루동령은 영국에 대호야 계속적으로 후원해 것을 주

창호하고 미국은 어느 나라와든지 교제기 불월해다 해였다.

로마던에 루동령연설을 회석한 만번 공론은 미국이 영국편에 들어서 참전해라 해였고 독지파 동맹에 대 훈미국에 양회 소망은 절대 되었다 해였다.

든든던에 영국은 루동령의 연설이 영·미 양국의 자유를 방호해 랑국합동역 양회라 해며 파장해 든 3국통령에 대호야 가장 솔직한 대답이라 해였다.

동경던에 루씨국방연설이 풀링국에 대호야 적수되 도를 반포해 것이라 해고해였다. 루동령의 서반구 방비연 설은 대개네문예로 분석해였다.

하와이 중병등록

와성훈던... 국세조사반포에 하와이에서 중병등록에 들사람은 7만 7千 4百 222명이 되었었다.
10월 26일에 하와이 군도에서 21 세로 30 에서 반구열국 애대동단결함에서 반구열국은 최근 영국서 조차해 대서양회군은 거지를 사용할수잇스며 미국은 서반구를 항한 대양에 대호야 충분히 국방시설

루매니아도의 이 편

부카레스토던... 덕국과 계화 청병 1만명이 루매니

미와 양회를 엿고 저호 눈줄.

미·국·인 철뢰를 질문

아국에 드려와서 전국 중요 디방을 다 점령 했었다 루마니아는 영·법·과 동일 했었던 바 법국이 결단 노후 루마니아는 혼가리와 소련국에 영토를 만히 할 양 했야 평화를 유지하며 히틀러 권세 하에 루국왕은 퇴위 했고 다른나라로 망명 했었다

루국에 주재한 영국공사는 영인들의 계족 시 죄국을 기를 명령하고 영·루탕국 간 국교가 단절 되는 대로 환국 훌러이다 루국석유·쌔솔린사업에 영·법·랑국이 거둬들여 투자훈바 히틀러는 영국의 자산을 작품 험여 불칸반도에 세력을 확장 했계적이오 이탈리는 희랍국을 엿보아 병탄코 저승며 토이기를 아시아로 아조 축출 했는 동시에 소련 세력을 넘기자는 것이다

소련은 흙해를 통한 야지 중히로 항해한 바덕·이량국 이불간재국을 조려 써고에 의심이나서 루마니아 국경에 각종 군사 설비를 굽금히 증가 했고 군수품과 군사를 만히 집중 했고 히틀러의 대아정책을 주목 했던 덕·아군 샤동맹이 작년 8월에 체결되었스나 데·이·일·三国동맹에 아국이 빼 젖슬이로 소련은 히틀러를 의심하고 영

동경던 일본의 상마 수육가는 주일 미국대사 크루세를 청 했야 선동에 사는 미국인들을 무손세습으로 죄개하는 나고 질문 했었다

와성 훈당국은 맷손회사 거선 두체와 구미왕래 훈련 선두채를 급급히 동양에 보너서 중·한·일·三国에 체류하는 1만~2천 명 미국인을 실어 올예산이다 자괴돈으로 선비를 관비 치못 했계되면 미국제에서는 선비를 지출 훈리이다 각처에 산전지 훈 미국인들은 거선회사에 선전을 주문 했스며 이다음 선편부터 동양에서 피란하는 미국인들이 호향을 둘나가리라 했었다

경성 보도에 600 명 미국인은 한국에서 아조 써나기로 결행 했고 소저 미국총령사와 교섭 했었다

상회에 있는 미국총령거선회사는 발표 했기를 一千六百명은 중국·一千一百명은 일본서 선전을 주문 했거나 라하고 거선회사 만원을 실고 미국에 도리라 했었다

맷손회사 당국은 말하기를 매리포샤와 몬리리거센의 매일정비는 7千 7百원인데 상회에서 상항까지 약 17일이 걸린다 했고 선원수호를 싸여 선비를 분배 허리라 했었다

국무성은 해외 이디방 정부에 통지 했야 동양 가는 려 힘 힘은 발급 했지 말나 했었스며 이곳에 있는 일본대리령사는 저히나 라 람다 려 신증한 히도로미·일 판계에 대 히야 말을 조심 했라 했었다

일본서도 지금 와서는 미국인들이 정부의 권고를 써 라 동양 헌지에서 희거 했으로 오히려 그들의 경거망동 을 후회하는지도 모른다 미국정부는 9개국 조약에 의 허야 일본이 만주를 침략 했을 때 터평양연안 현상유지를 주장 했고 일인의 청약 정책을 반대 했며 스크립손국 무경은 경권 침탈을 불승인 했노라 수차 성명 했어 있다 일본은 정이 불문 했고 한부분을 침령 했고 동인도를 점령 코 저호다 미국인은 동인도에 투자 했것이 만을 뿐 외라 양철·으레비·그의 중요산물을 동인도에서 갖다 쓰는데 동인도를 일본이

차지 했면 미국상공업에 큰 영향이 된다 그림으로 영미가 일찌이동인도 점령을 군력으로 향거 코 저할으로 험에 산재 훈 미군인 전부를 안전한 본국으로 소환 했다 일본언론계는 미국의 원통 정책을 저삼검사 했라 했었고 누워 험래고·추티분은 미국은 일본에 대호강이 업스며 일본이 바라기는 미국이 일본의 약심을 오히려 는 제합이니 이는 미국 백성이 일본에 대호야 덕국과 갖 치성각 힘이라 했었다

의성 훈던 주미경 아국 대서 오만스키는 국무차관 월스와 장시 간호의 훈바 너옹인 즉 미국이 각종 국제동속 허야 一千만 원 업치와 쟈솔린 등을 미국에 수출 케호 터이다

가신처 보도에는 미·아량국이 원통문에 대호야 확실히 양회를 못 어었는데 이는 소련이 루마니아 경제를 경됨을 특별히 주의 했는 동시에 미국과 협약을 매지면 일본의 반동이 엇더 훌까 주저 훈디 했었다 또는 아국의

군사세력은 피린제복에 무능함으로 미국이 그에 대하
야 신뢰할 수업는 줄 깨다랐다

히 랍 이 촘 전 할 듯

이슬린불던 덕병이 훌해 연안에 통병호야 그리스국
을 경벌코 저는데 덕·이 탕국이 회랑국이 친약호면토
이기는 희랑의 칠약 항거를 군사상으로 협조호듯하다
흙해 다나엘을 억국이 성령호면 소련이 그더로 도
의방판호수입술으로 토이기를 도아서 덕국의 불간 침
약을 방어호리라 훌었다
소련은 히틀러와 동맹온호엇스나 서로 못맞어 서로 거
동을 살피며 의실훈다 소련이 히틀러에게 불천호현도
를 취하든지 적수영·미와 공수양회가잇스먼 히틀러는
우가린디 뜨마 파란국정으로 소련을 습격하고 일본으
로 흥야금 동양에 서아령을 공습케 훌이다
그럼으로 중경가신보도에 소련국은 덕·이·일 三국
동맹에 무서워서 중경에 파견호연든 군사고문을 소원
하고 군수품통달을 아조운었다

STATEMENT OF THE OWNERSHIP, MANAGEMENT, CIRCULATION,
etc., Required by the Act of Congress of August 24, 1912, of Korean
Pacific Weekly, published weekly, at Honolulu, Territory of Hawaii,
Territory of Hawaii,
City and County of) SS.
Honolulu)

Sept. 28, 1940
Before me, a Notary Public, in and for the territory and county
Aforesaid, personally appeared Y. K. Kim, who having been duly

sworn according to law, deposes and says that he is editor of the Korean
Pacific Weekly, and that the following is to the best of his knowledge and
belief, a true statement of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the afore-
said publication for the date shown in the above caption, required by
the Act of August 24, 1912, embodied in Section 411, Postal Laws and
Regulations, printed on the reverse of this form, to wit:

The owner and publisher, Dong Ji Hoi, an eleemosynary corpora-
tion; Editor Y. K. Kim.

That the average number of copies of each issue of this publication
sold or distributed, through the mails or otherwise, to paid subscribers
During the twelve months preceding the date shown above is 500.

Y. K. KIM, Editor.

FRED R. GIDDING, Notary Public.

Sworn to and subscribed before me Sept. 28, 1940.
(My license expires June 30, 1941.)

마수옥가일본의상은 소련에 일본터사로 류군 장관
을파송호엇는데 이는일본이 소련파불침 조약을체결
하고또는 중국사변문제를 해결코 저호이라 소련이일
본의요구를 거절호면 일본은히틀러를 부추겨서 저의
통락에 써려지도록 힐쓰고것이다 그럼으로 일본의통
인도청약시기는 아국터도에 달였고 미·일간국교가 이
안치힐악호엇스나 아국이 확실히 영·미편에서 잇게되
는동시에는 동양에 디호훈영·미합작이장래 될듯하다

○ 보고 ○

경계자본디방 통상회를 10월 6일 개최하고 사전을
처리호바 여좌기로 자이보고호
一·본지방자치금으로 매명히에 215전식 30만에
차식너기로호는
三·민국 21년도 통지년례대표회에 전의세계경위
원은조덕석·김원선·윤천분·티성걸씨세선경호수
대한민국 21년
마위부네디방 통지회 회장 윤천분
동지회장 앙부장 손승운 각하



기독교회소식

호창디방기독교회에서는 지난례배—(七日)기독교 회임원회를 개최하고 두임원을 개선하였는데 주일학교 교장은 김학성씨로 청년례배지도는 김노덕씨로 선정 되야 암호로 만흔도움이잇스리라호더라

○리동빈목사 사직

우리교회의 청년례배와 주일학교를 위호야 수고안 히호하던 리동빈목사는 자기의 신병으로 인호야 더근 무례수업습으로 지난주일에 사임호고로 박교우들 은씨의 전장을위호야 기도안히호며 다시교회를 위호 야 힘써주기를 기대호다더라

○청년들의파티

본월二十六일저녁에 기독교청년들의 할노잉파티 가잇슬러인데 장소는 우리선홍국어학교로 정호였습 니다 교회청년는 누구나다이피티에오기를바란다더라

○주일학교 확장

기독교회에 어린이들의 부모되시는 여러분께서는

인사 소식

어린아들을 주일학교에 속참석계 지도하시요하느 님의말식을 어려서 배우제함이 유일호방척임이니 어려부모되시는 분들과 우리주일학교 지도자들이 서로 합력호야 우리주일학교가 날노확장되기를바란다더라

○김봉순씨차자 지산군은 류학자로 본월十七일설 편에미주 대륙을향호야 발정호여더라

○본향 향문서씨씨님은 미주에건너가 간호부학을 졸업하고 본월十六일에 본색에환차호였는데 탕씨너 의분은 씨님의금의환학함을 매우깃비호다더라

○길명원선식 출향

힐로행에서다년 저봉사업을호며 우리사교회를위 호야 힘만히서오는 길명원선생은 자질을 기독학원에 입학식히기위호야 지난十四일 선편에 출향호여더라

○리은행씨입원

본향리은행는씨로환으로인호야 스쿨스추릿 정부병 원에입원호여더라

동포사망

○힐로에거류이든 리병운씨는 신병드로인호야 헌군 병원에입원호야 치료중이든바 불팅히 벌세호였는데

씨는 미국군인이라 헌군령조례로써 안장호여더라

○와히아와 림설일씨는 본월十二일에 벌세호야하로 밤을경야훈후 와히아와 장지에안장호였는데 씨의년령은七十六세이오 유족은씨님이세분이더라

생산

○본향강요한부부는 十月五일에 성녀

○본향양핸드레(양피제씨자제)부부는 十月十四일에 성남

○본향김대길(가구상김창수씨자제)부부는 十月八일 예생녀

기독학원찬성회

본향에다년 거류호시던 김광현선생은 저간포병객 이되어 만흔세월을 병원에서치료중이든바 약효가무 허라 불침히금월十九일에 벌세호야 당일밤을누안두 장의소에서경야훈후 의일히오 두시에 기독교례배당 에서 김청순목사 주례로 장례식을거행훈후 누안누장 지에안장호여더라

김광현선생변세

본향에다년 거류호시던 김광현선생은 저간포병객 이되어 만흔세월을 병원에서치료중이든바 약효가무 허라 불침히금월十九일에 벌세호야 당일밤을누안두 장의소에서경야훈후 의일히오 두시에 기독교례배당 에서 김청순목사 주례로 장례식을거행훈후 누안누장 지에안장호여더라

○외교비

호항 김순오 二월 황원덕 一월 하원집 一월

김상의 一월 최대진

一월 고봉주

二월

정처운 一월

마나이 김의식 一월 한창교

一월 리월성

이상합 一월 김영록

一월 권규홍

장희봉 一월 김인규

一월 김명수

이상합금 一월

○자동차조

호항 김순오 一월 민근호

一월 박홍돈

리상우 五각 빙역규

一월 윤학근

리왕현 一월 이상합

六월五十전

○전호루락조

○기해이 김영조

三월 보단

최용근 一월

○호상금

고·김희용 우정조

고·배학규조

유정조

고·김은신조

동지회 호상부주 일

저정

○호상금

고·김희용 우정조

고·배학규조

유정조

고·김은신조

김종윤 고서창옥조 우정조

김연우 고·남경석조 우정조

김양식 빙인숙

김치현 윤주일

김연우 고·고인경조

김학준

리근배

티주우 티차이

안평훈

김의성

권유복

김윤구

리달성

송순이

주광선

배일전

송풍선

김창열

티요한

우정조

김봉남

홍매리

정국현

윤용순

박순일

서상순

강선이

고·리제도조 김학준 리근배 티주우 티차이 안평훈
리국성 오종식 민싸라 김완신 김정순 조애나
리승걸 김영두 김주한

신 씨 입 원

호항 송거준 박련선

라나이디방

티월성 一월 김영수

一월 김윤창

한창교

一월 김의식

五각 김복순

五각

김영록

五각

리상우

五각

장희봉

一월

티시화

二五

정현철

一월 김서우



아이아디방 신공설씨는 맹장영이 발성하야 현주교
병설에 입월호야 수술을 뱃고 방금 치료중이라는데정
차차도가잇술을 다험히녀인다며라

○ 고리발소

본인이 릴리하거리 빙야드코너에 있는 리발소를 매
특호야 리발사업을 「신학장호고 리발업을 개시호였
습니다

항너항의에 계신 일반동포께서 만히 차자와 주십시오
오리발도 미묘케 허려니와 수영도 세쓰시 쪽습니다

릴리하거리 빙야드코너 五〇三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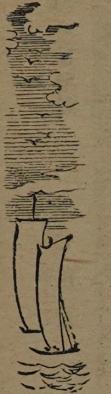
리발소주인 고처음 빅

○ 광고 ○

본인이 다른 사업을 경영하와 호텔거리 「四六호에
잇는 저봉침전방을 방매코저 허용는데 한인의 재는 특
별영가로 방매겠습니다

각종의 복파 저봉지구가 구비됩니다

호텔거리 一四六호 재봉점 주인 주·에푸·풍·백



고광 풀인씨 편

본려관은 광활호야 거처에 편리호으며 공기 가선선
호야 소성에 적합하며 청구 중앙에 있으니 성업상에 편
리하며 더운 날씨에는 흘렀고 매사를 잘 주선호야 신속
수옹호야 드립니다. 일반동포께서 만히 차자 오시옵
풀인씨 려관주인 김서울 빅

一一四九 꽃거리 던화 六八三五九

광강의사오피쇼 광강의사오피쇼

一一六一월

사무소는 딜링햄 켐팅 二一四우동

서부소련화 五一九八

사저련화 九三九〇四

회화박사 강영복

○ 광식물전방 광식물전방

百一 호로

본인이 베리한니아거리 아아라코너에 식물전방을
신설호 엊사읍는데 (각황식물·각색채소·각종파실·식
물로는 업노것이 업삼너다 률전온 죠코 신선호것을
취래하고 같은 다른전방보다 좀 헐호재 파을니다

의심마시고 본상점에 차자와서 한번 시험회보시오

특별히 농장에 계신동포께서 부탁호옵니다 식물의 부

엇이던지 원호시는 터로 부탁호시면 꽃수옹호예를 일

레이오며 뜨호 농장에서 채소등속에 무엇이던지 본

상점에 보너고 부탁호시면 상당호간감에 팔아서 실수

업시회를 일리이 오니 누구 시던지 한번 시험회보시고

피차 인연을 매져서 장티사업에 취미를 엿제호세다

호항 베리한니아거리 아아라코너 三二九호

식물상점주인 황룡의 고빈

던화 六八二一

V. Y. WHANG

329 BERETANIA Street

Honolulu, T. H.

卷之二

列寧書

廿四

설물과 약종이 구비호오니 소용되도 청구호시오
연신속히 승옹호으리라

二元 이외에도 영단 영신휘파 그라 각종약이며 각 종소설파 우라버신대 소동이 만이잇사오니 한번시험
호야보시요 물에제인 생삼一근에 三원五각
 쑥고 어속끔은인삼부자대조감였다섯가지로조합
 원고인데 냉증습증 모든 체증에 신효잇는 신발명이
 오너 이상병증이잇는분은 일차시험호야보시요 뉙은
 쑤기고한근에 二元이오 상쑤기고환 근에는온 五원
 본인이 약풀파 식물파 소설등속을
 발매호는바매

이 광고에 있는 것을 주문하시면 즉시 수송할 것입니다
독용 국상품 - 탕증 **十國원** (四물탕) - 제 **二원**
안치환 (감지약) - 간장 **五十전** ○ 주의말술 **一권** **七十五전**
○ 조선어독본 (교파서) - 질 **一원廿五전** ○
○ 조선력사 **一권四十전** ○ **三국지** - 질 **一월七十五전**
옥련동 - 질 **一월七十五전** ○ **군양전** - **一권** **五十전**
번두머리암흔데먹는약 ○ 니알는데 약 ○ 국상품비단
물당초 - 근 **二월** ○ 사향 ○ 험사 - 품종 **五十전**
육편 - 권 **一월廿五전** ○ 춘종서대 - 권 **一월廿五전**
수은·산풀 삼용대보환 - 제 **九월** 소합환 - 개
세이 구비호오니 만련하대한동로는 이고히주심을
간절히 라바나이다

549 N. SCHOOL ST. Honolulu, T. H.
BAI YIL CHIN

Center for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Hawai'i at Mānoa

喚起百萬同志

綱政大三會志同

DONG JI HOI

태평양주보사

매주 월요일 발행

사무소 : 북경 - 스후릿 93-1호

우함 : 一五七三 면화 : 八九八四九

주필 : 김성기

편집 : 一권 : 10

발행 : 연집 : 400

주소 : 주소를 변경하면 즉시

저무 : 김유실

본사로 통지하시오

편집 : 1년

주제 : 김성기

주제 : 10

주제 : 김성기

주제 : 400

주제 : 주제를 변경하면 즉시

주제 : 김유실

주제 : 10

주제 : 김성기

주제 : 400

주제 : 주제를 변경하면 즉시

주제 : 김성기

주제 : 10

주제 : 김성기

주제 : 400

주제 : 주제를 변경하면 즉시

주제 : 김성기

주제 : 10

주제 : 김성기

주제 : 400

주제 : 주제를 변경하면 즉시

주제 : 김성기

주제 : 10

주제 : 김성기

주제 : 400

주제 : 주제를 변경하면 즉시

주제 : 김성기

주제 : 10

주제 : 김성기

주제 : 400

주제 : 주제를 변경하면 즉시

주제 : 김성기

주제 : 10

주제 : 김성기

주제 : 400

주제 : 주제를 변경하면 즉시

주제 : 김성기

주제 : 10

주제 : 김성기

주제 : 400

주제 : 주제를 변경하면 즉시

주제 : 김성기

주제 : 10

주제 : 김성기

주제 : 400

주제 : 주제를 변경하면 즉시

주제 : 김성기

주제 : 10

주제 : 김성기

주제 : 400

주제 : 주제를 변경하면 즉시

주제 : 김성기

주제 : 10

주제 : 김성기

주제 : 400

주제 : 주제를 변경하면 즉시

주제 : 김성기

주제 : 10

주제 : 김성기

주제 : 400

주제 : 주제를 변경하면 즉시

주제 : 김성기

주제 : 10

주제 : 김성기

주제 : 400

주제 : 주제를 변경하면 즉시

주제 : 김성기

주제 : 10

주제 : 김성기

주제 : 400

주제 : 주제를 변경하면 즉시

주제 : 김성기

주제 : 10

發揮三一精神



Center for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Hawai'i at Mānoa